



정읍시는 정읍천을 '안전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즐거는 하천', '모이는 하천' 등 4가지 테마로 꾸며나갈 방침이다. 정읍천 전경. <정읍시 제공>

정읍천 '가고 싶은' 하천으로

시,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1차 심사 통과 사업비 739억원 투입 친수공간 조성... 12월 최종 선정

정읍시가 주민 친화형 친수공간과 정읍 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환경부 주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도심을 관통하는 정읍천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1차 관문인 전북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친수, 이수, 수질, 생태, 경관 등 다양한 하천 사업을 일원화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중 환경부가 50%, 전북도가 20%를 각

각 부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 지역 균형발전에 기회로 받아들여지는 사업이다.

전북도 심사에서는 도내 6개 시군이 사업을 신청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정읍시가 신청한 정읍천이 선정됐다.

시는 '안전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즐거는 하천', '모이는 하천' 등 4가지 테마로 내장산과 정읍 시내를 연결하는 정읍천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 명소 정읍천을 꾸며나갈 방침이다.

오는 12월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739억원 규모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정읍천은 '정읍 관광의 핫플레이스 통합하천'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 심사에서 발표자로 직접 나선 최재용 부시장은 "정읍시가 추진 중인 정읍드림랜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읍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과 정읍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연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장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해 지역의 소득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발표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북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읍천이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하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시민의 장' 4개 부문 4명 선정

정읍시가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각 부분의 발전을 이끈 '정읍 시민의 장'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

시민의 장은 정읍의 명예를 대내외에 알리고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지역의 발전과 위상을 위해 헌신 봉사한 시민과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올해는 문화장 김영수(68)씨, 효열장 이정순(70)씨, 산업장 서선민(54)씨, 농업장 유남영(67)씨 등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화장 수상자인 김영수 씨는 정읍문화원장으로서 전통문화 계승보전과 지역문화 진흥에 힘써왔다. 그는 정읍예총 회장을 역임하며 예술인으로서도 전통의 맥을 잇고 지역 후학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왼쪽부터 문화장 김영수씨, 효열장 이정순씨, 산업장 서선민씨, 농업장 유남영씨.

효열장 수상자 이정순 씨는 농업인으로 101세인 고령의 시어머님을 46년간 극진히 봉양해 왔다. 특히 생업 유지와 슬하의 3자녀를 모범적으로 성장시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됐다.

산업장 수상자 서선민 씨는 '서선민 헤어라인' 대표로 36년간 헤어 디자이너로 종사하며 미용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 특히 관련 특허와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 신제품 개발 등 미용산업 신기술을 소상공인에 전수하는 등 후진 양성에 힘썼다.

농업장 수상자 유남영 씨는 정읍농협 조합장으

로서 지역 농민들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펼치며 농가소득에 기여해 왔다.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확대 운영으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에 공헌했고 생산과 유통, 가공, 체험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농업발전을 이끌었다.

시는 오는 29일 '제28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수상자들에게 '정읍시민의 장' 패와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4개면에 태양광 384개소 설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총 31억원 투입

고창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1억원이 투입된다.

고창군은 올해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 흥덕면에서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수면, 아산면, 성송면, 성내면, 부안면의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309개소, 태양열 26개소, 지열 13개소 등 총 348개소가 확정돼 내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이후 수요를 조사하고, 공모사업 신청 평가를 준비해 융복합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202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융복합지원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군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영운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기요금 절감 등 주민들에게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복도시' 남원, 한복 사진 공모전



남원시 한복사진 공모전 출품작

시, 23일까지 응모작 접수

한복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전통문화도시 남원에서 '한복 사진 공모전'이 열렸다.

남원시는 '2022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3일까지 한복 사진 공모전의 응모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남원을 배경으로 찍은 한복사진 분야와 남원의 과거 및 현재의 모습을 합성해 재미있게 표현한 분야 등 2가지의 주제로 진행된다.

아이패드와 애플워치 등 다양한 상품이 걸린 공모전 출품작은 담당자 이메일과 남원예촌 인스타

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에 한복이 필요하다면 관원무원 등문에 위치한 '화인당'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한복을 입었다면 관원무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예촌인스타그램 또는 화인당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전통문화도시 남원에서 한복 문화축제도 즐기고, 한복 사진 공모전을 통해 일상에서 한복을 즐기며 추억을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아동 학대 없는 고창 만들기

군, 컵홀더 활용 예방 캠페인

고창군이 컵홀더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고창군은 군청사 내 중증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새겨진 컵홀더 3000개를 제작, 제공했다.

캠페인은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긍정적인 자녀양육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컵홀더에 새겨진 문구는 '민법 915조 징계권 폐지, 처벌대신 긍정양육', '긍정양육 첫 걸음은 자녀

양기, 관심바꾸기'로 아동학대 신고번호를 안내하고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예방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연합회와 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다음달에는 읍면 순회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고창경찰서 등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길수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성화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아동 모두가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